

# 주장사파라...

⑥ 한암 스님의 '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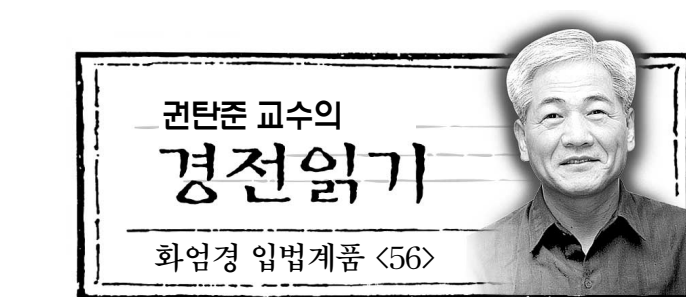
조태호



한암 스님(1876~1951): 강원도 화천 生, 금강산 장안사에서 행름 스님에게 득도. 신계사 등에서 공부하고 경허 스님의 법을 이음. 오대산에서 27년간 정진. 조계종 초대종정.

선재동자가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모든 나무의 꽃을 피우는 주야신(開敷一切樹華主夜神)'이다. 이 선지식에게 선재동자는 보살행을 배우고 온갖 지혜를 얻는 법을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야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해가 지고 연꽃이 오르며 사람들이 구경하던 일을 파할 적에, 여러가지 산이나 물이나 성읍이나 별관 동지에 있던 여러가지 중생들이 모두 그들의 있던 데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면, 내가 가만히 보호하여 바른 길을 찾게 하며 가려는 곳에 가서 밤을 편안히 지내게 한다.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한창 나이에 열기가 충실해서 교만하고 방탕하여 다섯 가지 욕락을 마음껏 즐기려 하면, 나는 그에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보이어서 두려운 생각을 내고 나쁜 짓을 버리게 하며, 다시 갖가지 선근을 청정하여 닦아 익히게 한다. 인색한 이에게는 보시를 천천히 하고, 파계하는 이에게는 청정한 계율을 청정하게 하고, 성질내는 이에게는 인자한 데 머물게 하고, 해칠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참는 일을 하게 한다. 게으른 이에게는 정진하게 하고,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닦게 하고, 나쁜 꾀를 가진 이에게는 반야를 배우게 하고, 소송을 좋아하는 이는 대중에 머물게 하고, 삼계(三界)의 여러 길을 좋아하는 이는 보살의 서원바라밀다에 머물게 한다. 만일 중생이 복과 지혜가 미약하여 번뇌와 업의 꾀박으로 걸림이 많은 이는 보살의 험바라밀다에 머물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큰 기쁨을 내는 광명의 해탈문'을 성취하였다."



개부일체수화 주야신의 법문

## 십바라밀로 그릇된 삶 바르게 인도 여래의 가르침 행하면 큰 기쁨 성취

이 주야신이 설하고 있는 '보살의 큰 기쁨을 내는 광명 해탈문'의 법문은 어두운 밤이 되어 여러 곳의 갖가지 중생들이 각각 있던 곳으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경지이다. 이것은 갖가지의 모습으로 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에게 각각 알맞은 지혜의 빛을 비추어서, 인생의 여러가지 질곡에서 구원해 주고 일체지(一切智)의 도(道)를 구하게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십바라밀의 도로써 중생의 그릇됨을 바로잡아 그들을 이익되게 하는 행(行)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선재동자가 이 해탈문의 경계가 어떠한가를 묻자, 주야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이 해탈에 들어가면 여래

는 바로 여래께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주는 교묘한 방편 지혜를 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중생들이 받는 여러가지의 진정한 낙은 모두 여래의 위덕(威德)의 힘이라고 하는 점이다. 즉 여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가르침을 실행하여 여래가 실행하면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참된 즐거움이나 행복은 자연히 얻어진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주야신은 이 법문에 들어가서 "비로자나 여래·응공·정등각께서 과거에 닦으시던 보살의 수행바다를 분명하게 분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야신은 여래의 과거의 보살행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래의 과거의 보살행을 깊이 사유해서 분명하게 보는 것이 보살의 큰 기쁨을 내는 광명 해탈의 법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의 보살행을 생각하고 분명하게 보는 것에 의해서만 어두운 밤에 광명을 밝혀서 바른 길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해 비추어진 생사의 현실세계에서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살행은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아 환희심을 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분이 하시던 기록행을 본받아 스스로의 참생명을 꽃피우고 또한 일체중생의 참생명도 꽃피우게 하는 행이다. '모든 나무의 꽃을 피운다(開敷一切樹華)'고 하는 선지식의 명칭도 결국은 여래의 근본 뜻(本願)을 열어 모든 행을 꽃피워서 방편바라밀을 성취하여 두루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네티즌 교리문답

### '회광반조'란 무엇인가요?

▶ 선 해설서를 보다보면 '빛을 되돌려 비추는다'는 '회광반조(迴光返照)'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D '부천시민')

▶ 답1: 회광반조란 한 생각 일어난 그 자리를 돌아켜 비춰 보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참선함을 말하는데, '참선할 때의 마음자리 잡음' 이라고나 할까요. 회광반조로써 조심(靜心)하면 육신의 느낌이 사라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경계가 옵니다. 물론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하여도 정신은 더욱 생생하나 바쁘지는 않고 한가하여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무아의 경계를 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아를 알면 제법도 무아인 줄을 알 것이고, 열반정경을 알게 되는 수행의 한 방법중 '마음 갖춤'을 일러서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D '심심해서')

▶ 답2: 내면의 빛과 빛을 보는 자가 같음을 알게 될 때 회광반조 하겠다고 합니다. 즉 회광반조란 빛을 보고 있는 자가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대상이 사라지면 보는 자가 남는데, 이때 보는 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반조라고 합니다. 주시자(注視者)가 주시할 때, 관찰자가 관찰될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D '김명성')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 선의 세계 30

### 불립문자(不立文字)-3

앞에서, 불교에서는 언어를 불신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 이유는 언어라는 것이 분별의 기제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분별이 왜 문제가 되는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온갖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분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분별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찌란 말인가?

불교에서 문제 삼는 분별은 보다 근본적인 분별이다. 즉 나 자신을 세상의 다른 모든 존재와 철저히 구별해서 독립되고 고유한 개체로만 보는 의식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아상(我相)이라든가 아집(我執) 등의 개념이 그것을 가리킨다. 내가 나 이외의 개체와 구별되는 존재임을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가?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한 개체로 태어난 이상 그 이외에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문제로 삼는가?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항변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현실의 양상에서는 다 좋은 항변이다. 불교에서도 그 당연한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다만,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그런 개체성 너머 또 다른 면의 진상을 담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 또 다른 면의 진상이란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연기(緣起)라는 개념으로 지칭된다. 즉, 다른 개체들과 서로 철저히 구별되어 독립된 존재로만 보이는 나 자신이 사실은 다른 모든 개체와, 나아가 세상 전체에 철저히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개체, 세상 전체가 그런 존재라고 본다. 모든 것을 구별하는, 특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객(主客)의 관계로만 보는 분절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박혀있어서, 우리는 그것만이 세상의 진상이라고 철칙 같이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들이치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다. 경전에 보면 '연기(緣起)를 보는 이는 법(法)을 보고 법을 보는 이는 곧 연기를 본다'고 했고,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법을 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법이란 세상의 온갖 존재와 현상, 또는 그 진상을 가리키며, 둘레 구멍에서 '나'란 부처를 가리킨다. 그러나

### 성불하기 위해선 연기적 존재라는 진상 깨달아야

란 연기법을 깨달은 이라는 얘기이며, 성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이,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와 세상 전체에 의존하는 연기적인 존재라는 그 진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분별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분별의 기제인 언어를 불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언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다. 불교도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냈고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남겼다. 경전이 어찌나 많으니 하더라도 팔만 사천 번만 언급했듯이 연기(緣起)라는 개념으로 지칭된다. 즉, 다른 개체들과 서로 철저히 구별되어 독립된 존재로만 보이는 나 자신이 사실은 다른 모든 개체와, 나아가 세상 전체에 철저히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2		25
26			24		27

정답은 26면에

## 상식퍼즐

가로 1. 구위의 합으로 만든 주화를 두루 이르는 말 5. 망루 7. 지(止)와 관(觀)이 들어 있는 말 8. 느릿느릿한 사람 9. 섬유로 이루어진 물질 11. 기우제를 내기 위해 설치한 단 13.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일의 영어단어 14. 시가 15.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16. 번뇌에서 해탈하는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일 19. 양쪽 문설주 아래에 가로 댄 나무 21. 호수를 세어서 마음을 가리키는 관법 23. 조그마한 물건을 크게 보이게 위해 포장하는 것 24. 배가 맞을 내리지 않을 때 잡아매려고 바닷물에 띄운 부표 26. 전기가 한때 들어오지 않을 27. 12시 중의 상오 9시부터 11시까지를 일침음.

세로 1.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12월 22일 2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관 후에도 재임 당시의 예우를 하는 일 3. 강원도 춘천시 남산(南山) 방화리(芳荷里)에 있는 섬 4. 비는 짐로 옷 따위를 짓거나 껌에 가나 하는 일 5. 관광객을 태우고 다는 버스 6. 군에서 하사를 지칭하는 북한말 10. 과거의 인류가 남긴 유형(形)의 제작품 12. 짧은 시간 13.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이론적으로 체계로 세워서 적은 글 17. 세계적인 규모로 벌어지는 큰 전쟁 18. 지나치게 많이 먹음 20. 처소나 시간 및 장소 안에서의 사실 등을 가리키기 한정하는 부사 21. 집을 수장하는데 쓰는 재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22.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 23. 일이 되어 가는 경로 25. 남에게 알려려고 드러내어 발표함.